



피아니스트 임미정,  
매번 다른 꿈을 꾸는 예술가



평론가 모리스 힌슨이 극찬한 피아니스트, 한세대 음대 교수,  
남북문화교류재단 상임 이사, 삼신 다이아몬드 광고 모델. 이 모두는 임미정의 수식이다.  
인생의 흐름을 따라갈 뿐이라 말하는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과 포부. 에디터 김가영 사진 이충규

대부분의 범인에게 있어 피아니스트란 '신동, 천재' 와 같은 수식어를 이름만큼이나 친숙하게 느끼는 경의의 대상인 동시에 고분고분한 있는 집 자식들이 성취하는 적당한 삶의 타이틀쯤으로 여겨진다.

임미정은 전자 쪽이다. 그녀는 서울예고, 서울 음대, 줄리어드 대학원, 스토니 브룩 뉴욕 주립대 박사 까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또한 Stony Brook D.M. A 콩쿠르 1위 입상과 Young Artist Scholarship Award, Artist International Audition으로 그녀의 떡잎이 싱싱하게 움틔음을 알렸다.

매일 8시간씩 연습한 덕분이었을까. 199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산 안토니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천재적인 음악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갖췄고, 내면의 소리로 관중과 대화할 줄 아는 피아니스트' 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또한 KBS 교향악단, 모스크바 국립 오케스트라, 슈타커 심포니 등과 같은 쟁쟁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화려한 프로필을 만들어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이력에 대해 임미정은 교과서만 봤다면 수능 만점자처럼 정답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다.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음악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은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예상치 않은 기회들이 주어지더군요. 그 뒤로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일은 흐름에 맡겨버려요."

임미정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성공한 면만 주목하는 것이 못내 아쉽단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의 숨은 노력과 실패의 쓴맛을 경험해 보라고 말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울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세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피아니스트와 음대 교수라는 직함에 남북문화교류재단 상임 이사를 추가시켰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활동이에요. 뉴욕 유학 시절, 학생들이 주최한 '남북 가곡 음악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음악회의 반응이 좋아 2000년 북한의 '4월 축전 행사'에 초청 받게 됐지요. 이후 매해 북한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주변의 많은 음악인들이 함께하고 싶어해서 단체까지 만들게 되었죠. 간단히 말해 음악가가 할 수 있는 민간 교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녀의 모습은 얼마 전 '삼신 다이아몬드'의 광고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북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음악인이라면 웬지 헝그리 정신이 가득한 고달픈 예술가의 전형이어야 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광고 모델이라니. 이러한 의구심이 가득한 물음에 자유분방한 예술적 끼만은 숨기지 못하는 그녀의 대답이 이어진다. "남북 문제를 논하는 사람은 보석을 얘기할 수 없나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야말로 편견이죠. 보석은 사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보석으로 표현된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도 해요. 전 그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석의 본래 의미, 기쁨을 주는,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걸요."

1분 1초를 쪼개 살아도 숨가쁠 것 같은 그녀가 요즘 대중적인 클래식 곡으로 구성된 CD 녹음 작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음악인 스스로의 자위가 아닌 보다 대중적인 곡들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히고 싶다는 그녀, 이 넘치는 에너지의 끝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